

<http://dx.doi.org/10.17703/JCCT.2022.8.5.265>

JCCT 2022-9-32

싼마오 산문의 한국어 번역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Korean Translation Strategy of San Mao's Prose

문대일*

Moon Dae il*

요약 싼마오는 대만의 저명한 여성 문학가이다. 그녀는 일찍이 해외 유학 경험을 통해 경험하고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독특한 문체의 작품을 많이 창작하였다. 그 중에서 『허수아비 일기』는 해외 생활의 에피소드를 기록한 산문이다. 이 작품의 한국어 번역본은 2종이 있다. 번역자에 따라 각기 다른 번역전략을 활용하였다. TT1은 의미 중심 번역을 많이 활용하여 이국적인 느낌을 많이 강조하여 번역하였다. 반면에 TT2는 소통 중심의 번역 전략을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번역을 추구하였다. 또한 특이한 점은 두 번역 모두 ‘창조적인 번역’을 시도하여 의도적으로 ‘변형’하여 번역하였다. 이러한 창조적 번역은 독자가 작품에 몰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를 계기로 싼마오 번역 작품에 대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주요어 : 싼마오, 번역 전략, 의미 중심 번역, 소통 중심 번역, 산문 번역

Abstract San Mao is a prominent Taiwanese female writer. She created many works in a unique style based on what she experienced and studied through her experience of studying abroad. Among them, 『Daocaoren Shouji』 is a prose that records episodes of overseas life. There are two Korean translations of this work. Different translators used different translation strategies. TT1 used a lot of semantic translation to emphasize and translate a lot of exotic feelings. On the other hand, TT2 pursued natural translation by using a communicative translation strategy. In addition, the peculiarity is that both translations attempted 'creative translation' and intentionally 'transformed' and translated. This creative translation helps the reader to immerse and understand the work. With this study as an opportunity, we hope that various follow-up studies on San Mao's translation will be conducted.

Key words : San Mao, Translation Strategy, Semantic Translation, Communicative Translation, A prose Translation

I. 서론

싼마오(三毛, 1943~1991)는 중국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여성작가이자 전문여행가이다. 싼마오는 1943년 3월26일에 중국 충칭(重慶)에서 태어나, 1948년에 아버지를

따라 대만으로 이주하여 유년시절 보냈다. 평소 중국고전문학 작품 읽기와 여행을 좋아하던 그녀는 중국문학대학을 철학과에서 수학하였고, 스페인의 마드리드대학교, 독일의 괴테대학교 등지에서 유학하고 모교로 돌아와 독일어과와 철학과에서 잠시 교편을 잡기도 하였다.

*정회원, 서원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7월 31일, 수정완료일: 2022년 8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9월 8일

Received: July 31, 2022 / Revised: August 25, 2022

Accepted: September 8, 2022

*Corresponding Author: wendayi@hanmail.net

Associate Professor of Dept. of International Studies, Seowon Univ, Korea

1960~80년대 단속적으로 유럽 전역, 아프리카 등지에서 공부하고 여행하면서 느낀 경험을 작품을 통해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스페인 출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 겪은 다양하고 소소한 에피소드를 천부적인 글솜씨로 엮어 많은 작품을 남겼다. 비록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지만, 그녀의 작품은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과 인생을 사유하고 바라보게 하는 바람을 일으켰다. 그중에서 『사하라 이야기(撒哈拉的故事)』(1976), 『허수아비 일기(稻草人手記)』(1977), 『흐느끼는 낙타(哭泣的駱駝)』(1977), 『나의 보배(我的寶貝)』(1987), 『친애하는 삼마오(親愛的三毛)』(1991년 5월) 등은 지금까지도 세계 여러 나라의 애독자가 끊이지 않아 꾸준히 재판되고 번역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도 삼마오의 중요 작품이 번역되었다. 『당신은 나 없이 살 수 있나요』를 시작으로 『사하라 이야기』, 『사막, 그 특별한 기억』, 『허수아비 일기』 등이 번역되어 한국의 연구자들과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 그중에서 『허수아비 일기』는 2011년과 2021년에 각각 조은과 이지영이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이 두 텍스트는 10년의 간격을 두고 출간했을 뿐만 아니라, 번역자에 따라 상이한 번역 전략을 활용한 부분이 확인 된다. 때문에 본 연구는 번역본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닌 각기 운용한 한국어 번역 전략의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번역 전략 사례를 분석해보고 그 특징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하 삼마오의 원본을 ST, 조은의 번역본을 TT1, 이지영의 번역본을 TT2라고 지칭한다. 본고의 연구대상은 『허수아비 일기』 중의 「대단한 꽃장수 할망구」, 「상사병」, 「가출한 아내에게」, 「플라스틱 아이」, 「수호천사」로 한정하기로 한다.

II. 연구방법

본고는 영국의 저명한 번역이론가 겸 번역가 피터 뉴마크(Peter Newmark, 1916~2011)의 이론으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일찍이 그는 의미 중심 번역(semantic translation)과 소통 중심 번역(communicative translation) 개념을 주장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의미 중심 번역은 최대한 원천 텍스트의 특색 및 언어표현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천 언어의 특징이 반영된 의태어, 의성어, 독특한 문화적 요소 등을 목표 언어로 재현하지 어려운 경우에는 문맥상의 '의미'를 해석하여 상세히 번역해

내는 것을 허용한다. 때문에 의미 중심 번역은 일반적으로 원천 언어의 문장 구조와 어휘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내용 전달에 역점을 둔다. 예를 들면 직역, 축자 번역, 음차 번역, 모사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에 소통 중심 번역은 가독성을 중시하여 목표 언어 습관에 따라 문장 구조 등의 변경이 많다. 또한 원천 언어 어휘 등을 그대로 원용하기 보다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적인 어휘들이 등장하고 목표 언어로 번역된 효과에 역점을 둔다. 예를 들면 의역, 번안, 생략, 대체, 변조 등이 이에 속한다.

III. 직역과 변조 전략

ST: 因為我点破了自己的謊言, 于是你又放心下來, 不來拼命了 [1].

TT1: 내가 거짓말했음을 내 입으로 밝혔으니 당신은 안심할 테고 우린 끝장을 볼 필요도 없어 [2].

TT2: 내가 다 이실직고했으니 또 마음 폭 놓고 날 끝장내러 올 생각은 접는 거 아냐? [3].

변조는 도착어의 언어 관점에서 볼 때, 논리성을 갖추고 보다 자연스럽고 어색하지 않게 번역하는 전략이다. 때문에 원문과 비교했을 때, 종종 어순과 관점이 바뀌기도 한다. 위 예문은 호세가 아내 삼마오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실토한 장면이다. TT1은 직역을 했으며, TT2은 변조의 전략을 활용하여 번역하였다. TT2은 두 가지 부분에서 변조를 시도하였다. 첫째는 '因為我点破了自己的謊言' 이 부분을 목표어 언권에서 자주 쓰이는 한자성어 '이실직고(以實直告)'로 번역하였다. 둘째는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TT1은 원문에 충실하여 '우린 끝장을 볼 필요도 없어'라고 평서문으로 번역하였지만, TT2에서는 '날 끝장내러 올 생각은 접는 거 아냐?'라고 의문문으로 번역하였다. 여기서 화자는 청자의 특별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화자의 강한 의도를 표현할 때 평서문보다는 의문문이 더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즉, 번역자는 화자의 의견을 강조하고자 의도적으로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변조하여 번역하였다.

ST: “不止哪——從那時候起, 每天看見隔壁那個老園丁就發呆, 又自言自語——不行, 太老了, 不會肯跟去——

隨便什麼時候進屋子，三毛那些書又一年一度地搬出來了——畜牧學，獸醫入門，牧草種植法——都攤在巴拉掛那張大地圖上面，她人呢，就像個我佛似的，也躺在地圖上。” [1].

TT1: “계속 들어보세요. 싼마오는 그때부터 매일 이 옷에 사는 늙은 원예사만 보면 넋이 나가서는 혼자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안 돼, 너무 늙었어, 같이 가려고 안 할 거야.’ 그러고는 무시로 방에 들어가서 목축학이 니 수의학 입문이니 목초 재배법이니 하는 책들을 1년에 한 번씩 꺼내다가 커다란 파라과이 지도 위에 늘어놓고, 자기는 그 위에 불상처럼 누워 버려요.” [2].

TT2: “그것뿐이 아니예요. 그때부터 날마다 옆집 그 정원사 영감님 넋 놓고 보면서 혼자 중얼중얼이예요. ‘안 돼, 너무 늙었어, 같이 가려고 안 할 거야.’ 그러곤 방에 들어가서 축산학, 수의학 입문, 목초 재배법 같은 책들을 막 들고 나와요. 1년에 한 번씩 꺼내는 셈이죠. 그리고 커다란 파라과이 지도 위에 책들을 죽 늘어놓고 자기도 와불처럼 지도 위에 벌러덩 누워요.” [3].

‘老園丁’에 대한 번역을 살펴보면, TT1와 TT2는 각각 ‘늙은 원예사’와 ‘그 정원사 영감님’로 번역하였다. 주지하듯, ‘園丁’은 원예사, 정원사라는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원예사’는 ‘채소, 과일, 화초 따위를 심어서 가꾸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4].이고, ‘정원사’는 ‘정원의 꽃밭이나 수목을 가꾸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4].이다. 위 예문은 싘마오가 남미 파라과이에 농장을 구매하여 토마토, 수박 등과 동물들을 사육하려는 희망을 서술한 부분이다. 때문에 본문에서의 ‘老園丁’은 ‘원예사’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작은 차이지만 ‘畜牧學’을 TT1에서는 대응되는 한자를 활용하여 ‘목축학’으로 번역하였고, TT2에서는 목표언어권에서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축산학’로 번역하였다. 또한 ‘就像個我佛似的, 也躺在地圖上’ 이 부분은 싘마오가 지도를 펼쳐놓고 그 위에 누워있는 모습을 묘사한 문장이다. TT1은 ‘자기는 그 위에 불상처럼 누워 버려요’라고 직역을 했으며, TT2는 ‘자기도 와불처럼 지도 위에 벌러덩 누워요’라고 표현을 재해석하여 번역하였다. ‘와불(臥佛)’로 그 의미를 더욱 구체화하여 번역했다고 할 수 있다.

ST: 平日三毛嘮叨不勝其煩, 今日人去樓空, 燈火不興, 死寂一片, 又覺悵然若失 [1].

TT1: 평소에는 싘마오의 잔소리가 지긋지긋 했지만, 지금 그녀가 없는 빈 집은 불빛 하나 없는 적막 그 자체였다. 뭔가를 잃어버린 듯한 울적한 기분까지 들었다 [2].

TT2: 평소에는 싘마오의 잔소리가 지긋지긋하기 짝이 없더니 떠나 버린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이야. 불빛 하나 없이 쥐 죽은 듯 고요하다. 공허하고 쓸쓸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 [3].

밑 줄 친 부분은 싘마오가 친정으로 가고 간 다음 집이 조용한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다. TT1은 ‘불빛 하나 없는 적막 그 자체였다’라고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였다. 반면에 TT2는 ‘불빛 하나 없이 쥐 죽은 듯 고요하다’라고 변조하여 번역하였다. 구체적으로 ‘쥐 죽은 듯’라는 관용어구로 변조하여 번역하였는데, 이는 독자로 하여금 조용하고 적막한 상태를 더욱 명확하게 느끼게 한다.

ST: 尤其夜間回家無人嚙蘇, 真是奇特的經驗 [1].

TT1: 특히 밤에 늦게 들어와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달까 [2].

TT2: 특히 밤늦게 들어와도 바가지 굵는 사람이 없다는 건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 [3].

밑줄 친 부분의 ‘嚙蘇’는 ‘잔소리’, ‘시끄럽게 말하다’라는 의미이다. 이 부분을 TT1에서는 ‘잔소리하는 사람’이라고 직역하였으며, TT2에서는 ‘바가지 굵는 사람’이라고 익숙한 관용 표현으로 변조하여 번역하였다. 일반적으로 목표언어권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늘어놓는 잔소리를 ‘바가지를 굵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TT2는 화자와 지칭 대상을 고려하여 ‘바가지를 굵다’라고 번역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VI. 차용과 직역 전략

ST: 卡洛根本不怕鬼, 她叫我告訴你, 你好嗎? [1].

TT1: 캐롤은 원래 귀신을 안 무서워해. 캐롤이 당신한테 전해 달라네. 니하오마? [2].

TT2: 캐럴이 이 말 좀 전해 달라네. 유행이 뭐가 무섭냐고. 잘 지내지? [3].

TT1은 중국어 표현을 그대로 차용한 경우이다. ‘你好嗎?’ 대한 중국어 원어를 한국어 발음으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기실 ‘니하오마?’는 중국어를 학습하지 않은 사람도 모두 이해하는 쉬운 문장이기 때문에 이국적인 분위기를 살려 중국어 발음을 차용하여 번역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차용은 원문의 단어 등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중국어 한자를 한국어 발음으로 바꾸어 번역한 점에서 넓은 의미의 차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에 TT2은 목표언어권 독자를 고려하여 이국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你好嗎?’를 직역하여 ‘잘 지내지?’라고 번역하였다. 즉, TT2의 번역이 중국어 표현을 직접 차용한 것보다 목표언어권 독자가 보다 친숙하다고 느낄 수 있다.

ST: “我問過費洛尼加的先生了, 他們在南美巴拉圭做地產生意, 我向他們訂了兩百公頃的地, 耶誕節一過就正式給回音.” [1].

TT1: “베로니카 부부가 남미 파라과이에서 부동산을 하는데, 자기가 벌써 베로니카 남편한테 다 물어보고 200헥타르 예약했다고요.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곧장 답을 주겠다고 했대요.” [2].

TT2: “베로니카 부부가 남미 파라과이에서 부동산을 해서 거기다 물어봤대요. 60만 평을 사기로 벌써 애기해 봤고 크리스마스 지나면 정식으로 답을 듣기로 했대나…….” [3].

TT1은 원문의 면적 단위를 그대로 차용하여 ‘200헥타르’라고 번역하였으며, TT2는 ‘60만 평’이라고 목표언어권 면적 사용 단위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주지하다시피, 1ha는 10,000m²로 200ha는 2,000,000m²이다. 이를 다시 환산하면 약 60만평이 된다. 이렇게 목표언어 독자들이 익숙한 단위로 환산하여 그 면적을 빠르게 가늠하게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헥타르-제곱미터-평수’까지 세 단계로 계산해야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V. 직역과 추가 전략

ST: “你看, 嚙不嚙蘇, 一天到晚找我吃飯, 吃飯, 討厭透了.” [1].

TT1: “보세요, 어휴 저 잔소리. 온종일 밥, 밥. 밥 먹으라고 저러신다니까요. 정말 지겨워요.” [2].

TT2: “저것 보세요,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 아침부터 밥까지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지겨워 죽겠어요.” [3].

추가 번역 전략은 원문에 없는 내용을 목표언어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을 추가하여 번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嚙蘇’는 ‘잔소리 하다’라는 의미이다. TT1은 직역을 위주로 추가 번역 전략을 활용하였는데, 원문에서는 ‘吃飯’이 2회 나왔지만 ‘밥’을 연속해서 총 3회 번역하여 잔소리의 느낌을 살려 주었다. 반면에 TT2는 ‘밥’을 추가하여 번역하지 않고, ‘잔소리’를 총 3회 연속해서 추가 번역하였다. 두 번역 모두 원문의 의미를 훼손 하지 않는 차원에서 느낌을 잘 살려 번역했다고 볼 수 있다.

ST: 對付這樣的一个妻子, 荷西当然羞于登報警告 [1].

TT1: 호세는 아내의 이런 행동에 ‘사람을 찾습니다.’ 신문 광고 내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다 [2].

TT2: 그런 아내에게 돌아오라고 신문 광고를 내는 것은 호세에게는 참을 수 없는 수치다 [3].

위 예문은 썬마오가 아무런 예고 없이 혼자 타이완으로 돌아간 상황에 남편이 아내 썬마오가 하루 빨리 돌아오기 바라는 마음에서 신문 광고까지 내는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다. TT1은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원문에 없는 문장을 파격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신문 광고의 내용을 강조하였다. TT2에서도 ‘돌아오라고’라는 어구를 추가하여 문장의 의미를 완전하게 표현하였다. 기실 원문과 같이 ‘신문 광고 내는 것’으로만 번역하면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역 모두 추가 번역 전략을 활용하여 그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ST: 看“山地小姐”穿紅着綠帶着假睫毛跳山地舞之后, 我們請孩子們上床 [1].

TT1: 화려한 복장에 인조털을 두른 타이완 원주민 아가씨들의 전통 무용을 보고 나서 아이들을 잠자리에 눕혔다 [2].

TT2: 인조털을 붙인 알록달록한 의상을 입은 고산족 아가씨들의 민속춤을 보고 나서 아이들을 재웠다 [3].

원문에서 ‘山地小姐’는 타이완의 산속에서 거주하면서 자신의 전통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소수민족을 의미

한다. TT1은 ‘타이완 원주민 아가씨들’라고 번역한 반면, TT2는 ‘고산족 아가씨들’이라고 변조하여 번역하였다. 그러나 대만의 아미족, 고산족 등 여러 소수민족이 있지만 ‘산간 지대(山地)’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하여 ‘높은 산에 사는 민족(高山族)’으로 번역한 것으로 생각된다.

VI. 번안 전략

ST: 屋外傳來英格擤鼻涕的聲音, 想來她被荷西這一番囁舌, 感動得流淚了吧! [1].

TT1: 밖에서 잉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호세의 빠꾸기에 감동해 눈물을 흘린 것이리라! [2].

TT2: 밖에서 잉거가 코 푸는 소리가 들려온다. 호세의 입담에 감동한 나머지 눈물이라도 흘린 걸까? [3].

‘囁舌’의 사전적 의미는 ‘함부로 말하다’, ‘쓸데 없이 논쟁하다’ 등의 이다. TT1과 TT2에서는 이 부분을 각각 ‘빠꾸기’와 ‘입담’이라고 번역하였다. 모두 번안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 볼 때, 번안은 원천 문화의 특정한 내용을 목표 문화에 상응되는 마땅한 표현이 없을 때 적당한 것으로 바꾸어 번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예문에서 문맥적으로 ‘一番囁舌’는 호세가 잉거에게 사건의 전후 관계를 잘 이유를 설명하여 오해 여지없이 잘 이해시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TT1과 TT2 모두 ‘말을 잘하다’라는 의미에서 ‘빠꾸기’와 ‘입담’으로 번역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빠꾸기’는 일반적으로 이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용된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쓸데없는 말’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때문에 여기서는 ‘입담’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에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ST: “英格, 請不要誤會, 三毛一向不是個專情的女人” [1].

TT1: “잉거, 오해하지 마세요. 싼마오는 절대 바람날 여자가 아니에요.” [2].

TT2: “잉거, 오해하지 마세요. 싼마오는 사랑에 목숨 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3].

밑줄 친 부분을 보면, TT1과 TT2는 부분적으로 모두 번안 전략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애정의 대상이

바뀌지 않고 전심을 다하다’라는 의미로 ‘專情’을 사용한다. TT1은 앞 문장과 연계되는 뜻으로 ‘싼마오는 바람피지 않는다’는 의미로 번역하였지만 원문의 의미와는 약간 거리가 있다. TT2는 완전히 다른 언어표현으로 번안하여 ‘싼마오는 사랑에 목숨 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라고 번역하여 목표 문화의 언어표현 등을 고려하여 번역하였다.

ST: 許久沒有你的來信了, 我天天在苦等着. 可能你正在橫貫公路上旅行, 但是旅行的地方也應該可以寄張明信片來啊! [1].

TT1: 오랫동안 답장이 없어서 나는 매일매일 괴로워하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아마 당신은 지금 여기 저기 신나게 여행을 하고 있겠지. 그래도 여행지에서도 엽서는 보낼 수 있잖아! [2].

TT2: 편지가 너무 오래 안 오고 있잖아. 날마다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 타이루거 협곡이라도 여행하나 본데, 여행지에서도 엽서 한 장은 보낼 수 있잖아! [3].

밑줄 친 부분을 보면, TT1은 ‘여기저기 신나게 여행을 하고 있겠지’라고 번역하였으며, TT2는 ‘타이루거 협곡’이라고 번역하였다. 두 번역 모두 목표언어권 독자들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안 전략을 활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예문에서 ‘橫貫公路’는 대만 중부 지역을 가로 지르는 횡단 도로이다. 이 지역 주변에 관광명소가 매우 많다. 때문에 TT1에서는 ‘橫貫公路’ 주변의 여러 지역을 여행한다고 의미로 번역하였다. 실제로 ‘橫貫公路’ 주변에 관광지 중에서 타이루거 협곡이 가장 유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TT2에서는 ‘橫貫公路’를 빼고 직접적으로 원문에 없는 ‘타이루거 협곡’을 삽입하여 번역하였다.

VII. 창조적인 번역 전략

ST: 海, 在他們上學放學住公寓的生活里, 畢竟是那麼遙遠的事啊! [1].

TT1: 학기 중이든 방학이든 학교와 집만을 오가는 아이들에게 바다는 아무래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도 먼 존재였다 [2].

TT2: 아파트에 살면서 학교와 집만 오가는 아이들에게 바다란 이토록 머나먼 존재란 말인가 [3].

기실 원문에서 ‘放學’은 ‘방학’의 의미가 아니라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다’라는 의미이다. 특히 ‘放學’가 ‘上學’(등교하다)와 함께 붙여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교하다’는 의미로 쓰여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TT1에서는 1년 내내 아파트에서만 생활하는 아이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학기 중이든 방학이든 학교와 집만 오가는’이라고 창조적으로 해석하여 번역하였다. 반면 TT2에서는 ‘학교와 집만 오가는’이라고 번역하였다. 이는 TT1에 비해 하루의 반복되는 일과로써의 의미가 강하다.

ST: “即使是一秒鐘也舍不得放下來我手帕, 怕孩子吹了風淋了雨要生病.” [1].

TT1: “손수건을 찾으려 아이를 내려놓아야 하는 그 1분의 시간도 아까운 거야. 아이가 바람에 날아갈까, 비에 젖을까, 혹여 병이 날까봐.” [2].

TT2: “손수건을 찾는 1초도 아까운 거야. 아이가 비 바람에 감기라도 들까 봐.” [3].

‘一秒鐘’은 명확하게 ‘1초’라는 의미이다. TT1은 ‘1분’이라고 번역했고, TT2은 ‘1초’라고 번역하였다. 전후 맥락을 보면 ‘짧은 시간이라도 아깝다’라는 의미이다. 때문에 TT1에서는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고의로 ‘1분’이라고 번역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목표 언어권 독자들은 원문을 일일이 대조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분’이라고 번역해도 충분히 ‘짧은 시간’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ST: 擁抱你, 你忠實的丈夫 荷西 [1].

TT1: 키스를 보내며, 당신의 충실한 남편 호세가 [2].

TT2: 포옹을 보내며, 당신의 충실한 남편 호세가 [3].

‘擁抱’는 ‘포옹하다’라는 의미이다. 원문은 남편이 아내에게 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애정을 표현한 것이다. TT1은 의도적으로 ‘키스를 보내며’라고 바꾸어 번역하였으며, TT2은 ‘포옹을 보내며’라고 번역하였다. 가족에게 편지를 쓰거나 메시지를 보낼 때, 마무리 인사로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애정 표현을 한다. 일반적으로 목표언어권에서 편지를 쓸 때 ‘포옹을 보내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기 때문에 고의로 바꾸어 번역했다고 생각된다.

VIII. 나오는 말

본고는 싼마오의 산문에 대한 한국어 번역 전략을 확인해 보았다. TT1과 TT2 모두 여러 가지 번역 전략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작품을 번역하였다. 그중에서 TT1은 ‘의미 중심 번역’ 위주의 번역이 비교적 많았다. 특히 한자어, 고사성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번역하였으며, 직역 위주의 번역이 많았다. 이러한 번역은 목표 언어권 독자로 하여금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반면에 TT2은 상대적으로 한자어, 문화적 어휘 등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소통 중심 번역’ 전략을 주로 활용하였다. 특이한 점은 두 번역 모두 부분적으로 ‘의도적인 오역’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창조적인 번역’을 진행하여 원문의 뜻을 최대한 목표언어권 독자들이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를 계기로 싼마오 번역 작품에 대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References

- [1] San Mao, Daocaoren Shouji, Beijing Shiyue Wenyi Chubanshe, China(2017).
- [2] Lee Ji-young, Scarecrow's Diary, Joen Saenggak, Korea(2011).
- [3] Cho Eun, Scarecrow's Diary, Gina Books, Korea (2021).
- [4] <https://zh.dict.naver.com/>
- [5] Yoon Seong-u and Lee Hyang, Translation studies & philosophy of translation, HUEBOOKS, Korea(2013)
- [6] Jeon Hyeon Ju, Translation criticisms,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Korea(2008).
- [7] Bassnett Susan, Translation studies, Hansinmunh wasa, Korea(2004).
- [8] Greiner Norbert, Übersetzung und Literaturwissenschaft, Korea University Press, Korea(2021).
- [9] Moon Dae Il, Aspects of Liang Qichao and Choi Namsun's Enlightenment Project, JCCT, vol.7, no.2, May 2021, pp. 261-267.
- [10] Moon Dae Il, A Study on the Korean Translation Strategy of 《Mu Yang Ai Hua, 牧羊哀話》 by Period, JCCT, vol.7, no.1, February 2021, pp. 377-382.